



망 중립성 개념 및 서비스 동향

김창환*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융합하여 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제반 기능을 혁신시키는 차세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선 이 때 인터넷 시장의 경쟁력을 고취시키고자 정부는 망 개방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차세대 망 인프라와 IT 거버넌스 등과도 포괄적으로 관련되면서 패러다임에 대한 정체성 기반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 모델부터 정산 체계·상호 접속 등 인터넷의 운영 원칙까지 기존 인터넷 환경 전반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 및 추진과제 그리고 최근까지의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망 중립성에 대한 공감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

목	차
---	---

- I. 도입 배경
- II. 개념
- III. TV 포털
- IV. 추진과제
- V. 시장 동향
- VI.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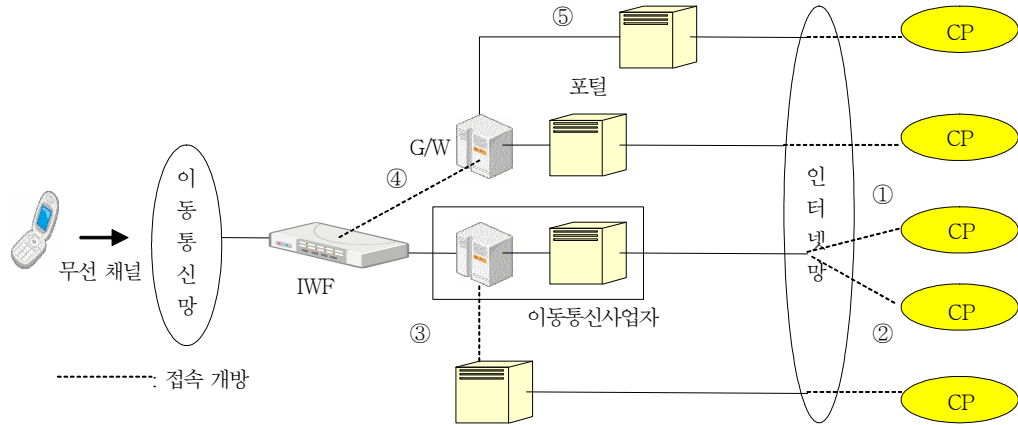
I. 도입 배경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은 많은 초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과감한 투자와 단말기에서 솔루션까지의 철두철미한 기획에 힘입어 초기 시장 위험을 갖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사의 무선인터넷 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망 사업자와 CP, 솔루션사업자(Solution Provider: SP) 및 서비스 사업자 등의 수직적 계열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CP 선택 제한으로 인해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유·무선, 음성·데이터 융합에 따른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의 총아로 대두되는 무선인터넷 시장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 공정 경쟁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무선인터넷의 경쟁력을 확대

* 수양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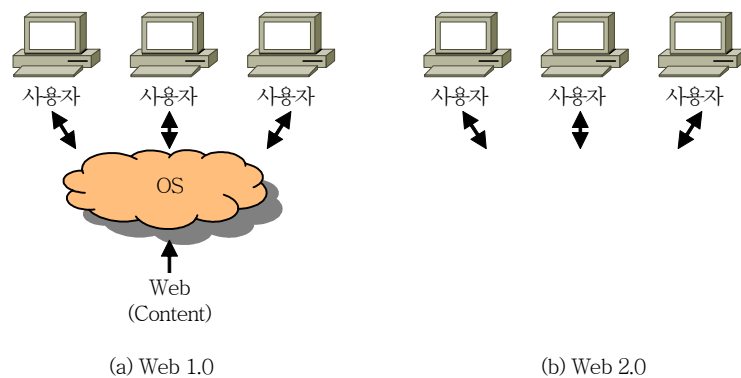
- ① CP가 이동사업자의 포털 메뉴에 콘텐츠 목록을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공식 사이트)
- ② 초기 URL을 입력한 이용자에게 원하는 CP의 콘텐츠를 제공(비공식 사이트)
- ③ 포털 사업자가 IWF(Internet Working Function)에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
- ④ MISP(Mobile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IWF에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
- ⑤ 포털 사업자가 MISP의 G/W에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

(그림 1) 무선인터넷 망 개방 유형

하고자 정부는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초부터 국내외 대중매체들은 인터넷 산업의 가치 창출 및 수익 흐름의 구조가 야후나 구글과 같은 대형 CP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구글은 Web 2.0이 등장함에 따라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구글의 Writely.com에 접속하면 별도의 워드 프로그램이 없이도, 웹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응용프로그램 부럽지 않게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Web 2.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으로서의 웹(The Web as platform)’이다. 가장 대표



(그림 2) Web 1.0 과 Web 2.0

적인 플랫폼은 바로 운영체제이며, 여기에 윈도우즈라는 것이 있다[1]. 윈도우즈가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위상을 차지하면서 일반적인 사용자가 직면하는 플랫폼은 그것에 국한되었고, MS 사는 이 플랫폼을 장악하여 현재까지도 그 영화를 누리고 있다. 웹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는 시대가 오면, PC 에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문서작업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오면 MS 사도 지난 날의 영화는 이전만큼 같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도 이러한 CP의 콘텐츠에 대한 점유로 인해 이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 자구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망 중립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ITU-T 의 NgN(Next generation Network)이나 우리나라의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영국 BT 의 21CN(21st Century Network)과 같이 기존 인터넷 아키텍처의 변화를 피하는 All-IP 기반 컨버전스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결국 망 중립성은 사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제(usage-based pricing), 망 투자, 설비 기반 경쟁 그리고 망에 대한 비차별성 등과 관련이 깊다. 또한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와 IT 거버넌스 등 과도 포괄적으로 관련되면서 향후 패러다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기반을 반드시 설정해야 될 줄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 및 문제점 그리고 최근까지의 동향을 정리 함으로써 향후 망 중립성에 대한 진행에 대하여 알아본다.

II. 개념

얼마 전 IPTV 전 단계인 하나로 텔레콤의 하나 TV 가 LG 파워콤과 SO(케이블 TV 사업자)에 의해 망이 차단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통신업체간 갈등 속에서 망 중립성 논쟁이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망 중립성 논쟁은 단순히 인터넷 콘텐츠와 트래픽을 둘러싼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경제적 헤게모니 싸움을 넘어 향후 또 하나의 세상인 인터넷의 지형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이슈는 미국에서도 법안이 7~8 개나 쏟아질 정도로 정보통신기술업계를 넘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례를 들면 2006년 4월 Network Neutrality Act 에서는 특정 웹 사이트가 ISP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제화하였으며 그 해 6월 통신법 개정 사항을 논의한 후 최소한의 망 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

망 중립성에 대한 정의는 구현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 망 중립성은 간단하게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망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EU가 정보사회 보고서에서 ‘망 규제는 상호접속 및 상호 운용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망 중립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3].

결국 망 중립성은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콘텐츠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차별성(no discrimination),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접근성(accessibility) 등의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또한 ISP들이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평등하게 처리해야 하며, 요금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전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먼저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과정 및 서비스 접점에서 ㉠ ISP와 사용자간 접속 ㉡ ISP 간 상호접속 ㉢ CP와 ISP 간 연동 ㉣ CP와 사용자간 연결이다.

접점 ㉢에 해당하는 CP와 ISP간의 관계설정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망 중립성의 화두이다. 그러나 다른 접점은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역할이 잘 정착되어 망 중립성에 관련된 대부분의 원칙들이 잘 적용되어 있다.



(그림 3) 인터넷 서비스 접점과의 관계

우선 비차별성은 모든 트래픽은 물론 네트워크 사업자의 트래픽을 포함해 네트워크상에서 동일하게 취급 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비트 동등성’ 원칙이다. 즉, 모든 비트를 공정하게 취급해야 하며, 특정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상호접속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 사업자와도 상호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심지어 경쟁업체의 망이라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상호접속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접근성은 사람을 비롯해 모뎀,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 이용자가 다른 어떤 최종 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은 도입 초기부터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와 통신망간 동등접속 협정에 따른 무정산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즉, 이 같은 개방과 비차별의 원칙은 인터넷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망 중립성 개념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타사업자와의 상호접속 없이도 인터넷 연결성을 확보하는 인터넷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인터넷 접속체계와 정산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망에서 소통되는 트래픽 또는 사업자를 항상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인터넷의 발전에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제기이며, 그 중심에 바로 망 중립성 개념이 위치하고 있다.

망 중립성을 둘러싼 찬반의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 관계자들간 갈등을 넘어 인터넷이라는 또 하나의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유비쿼터스에서의 망 접속을 넘어 Grid 서비스에서의 파일 접속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해 볼 때 이에 대한 차별적인 역할은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I. TV 포털

그 동안 쟁점이 되어온 ‘하나TV’의 포털 서비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CP 서비스가 ISP 역할까지 하므로 정산 문제에 대한 화두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정부가 하나TV에 T커머스 사업자 허가를 내 준 것은 정식으로 방송사업자 약관 신고를 하고 시장에 들어오라는 뜻이었다”며 “기형적인 서비스를 하는 하나TV의 T커머스 사업권을 박탈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T 커머스는 소비자와의 접점 범위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 및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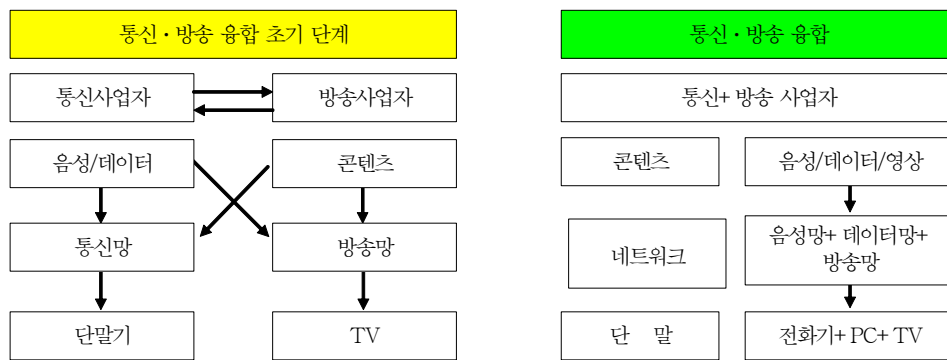
TV 포털은 TV 와 인터넷에서의 소위 말하는 관문을 융합한 개념으로 TV 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Vo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4].

미국에서는 2000년 5월 가트너그룹이 TV 포털에 대한 시장 전망이 밝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관심을 끌었다. 한국은 2003년 11월 정부가 광대역 통합망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TV 포털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자가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 볼 수 있도록 한다. IPTV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IPTV와 달리 방송편성과 순서가 필요하지 않아 방송이 아니라 통신에 포함된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VoD를 골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의 범주에 속한다는 뜻이다.

TV 포털 서비스가 시작되면 리모컨을 누르는 방식으로 디지털 TV 를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스, 음악, 영화, 게임, 교육, 생활정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셋탑박스가 있어야 하며, 관련 업체들이 디지털 TV 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TV 도 필요하다[5].

한국의 LG 전자(주), 삼성전자(주), SK 텔레콤(주), J 인터넷(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조인스닷컴(주) 등은 디지털 TV 포털 서비스의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2007 년 3 월 디지털 TV 포털 컨소시엄을 창립하고 수도권 신규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TV 포털 사업은 다른 TV 포털과는 다른 한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개방형’이라는 형태로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림 4) 통신·방송 융합의 전개 방향[6]

인터넷이라는 통신 경로를 통하여 방송 콘텐츠를 접근한다는 점에서 IPTV 서비스와 TV 포털은 흡사하나 전자는 기본적으로 방송 서비스 및 대화형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수신하면서 양방향의 부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는 면이 있는 반면, TV 포털은 인터넷 포털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방송 서비스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를 검색 및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TV 포털은 방송·통신이라는 기존의 분리된 두 영역의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컴퓨터는 용도에 맞게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면에서 컨버전스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TV 포털 서비스는 법제도적 미비로 인해 다채널방송 등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PC 기반 포털과 큰 차별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다채널방송 및 양방향(interactive)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 새로운 킬러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TV

기능은 단순히 방송만을 시청하기 위한 도구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였으나, 점차 TV 포털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TV는 소비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창구, 즉 일종의 포털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서비스 포지셔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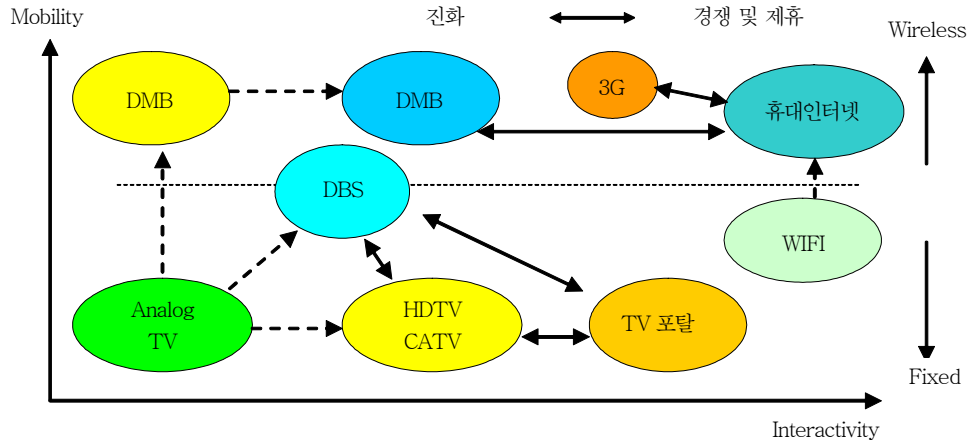
현재 통신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 모두 논란을 거듭하면서 TV 포털 서비스를 차세대 수익원으로 여기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림 5)의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에서도 볼 수 있듯이, TV 포털 서비스는 현재 3G, 휴대인터넷, TV 방송과 상호 충돌하지 않고 독립적인 영역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7].

과거 아날로그 TV 방송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양방향성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기존 TV에 데이터 서비스, 양방향 서비스가 부가된 신규 킬러 서비스인 TV 포털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포지셔닝 맵에서 다른 영역은 현재 모두 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영역인데 반해, 현재 TV 포털 서비스 영역은 어느 사업자도 주도권을 갖지 못한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있어 사업자간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TV 포털 서비스는 서비스 초기 단계라 가치 사슬 상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는 CP, PP(Contents Provider) → CA(Contents Aggregator) → SP(Service Provider)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 상에서 서비스 제공자(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비즈니스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통신·방송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임과 동시에 CA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부 대형 PP가 CA의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점차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해가면서 CA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다양해지는 수많은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기업이 직접 통제·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많은 콘텐츠를 패키징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의 기업들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V 포털은 방송과 통신 영역이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웹 포털 개념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개념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IPTV 및 TV 포털은 어느 한 쪽의 정의에 따라서 다른 쪽을 포함하는 의미가 될 가능성이 많다. IPTV가 가지는 실시간 방송의 의미가 정부의 규제로 전개에 장애가 될 때 서비스 방향이 초기에 TV 포털은 Casting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방송 편성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5) TV 포탈 서비스 포지셔닝

인터넷 기반의 포털 서비스의 구성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은 향후 PC 및 인터넷을 통해 하던 것들을 대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방송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양방향 디지털 방송, 데이터 및 T-Commerce 와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반면, 통신 및 웹 포털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방송에서는 취약했던 서비스를 풍부하게 지원하자는 것이 관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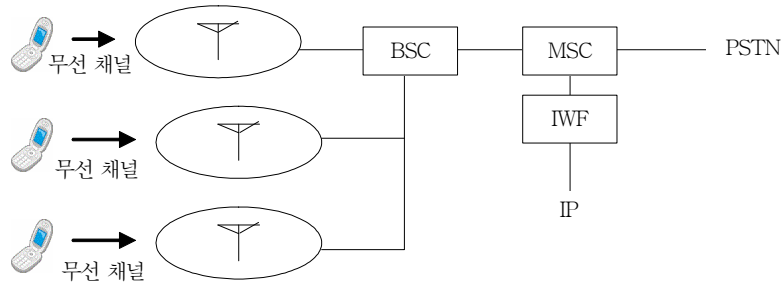
IV. 추진과제

1. 과금 방식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과 관련, 이동전화 사업자의 추가적인 무선인터넷 망 설비 구축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초기에는 상호접속을 통한 접속료 정산방식보다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료를 정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포털업체들은 신규 서비스로 통신료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접속료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쟁점화될 전망이다.

2. IWF 개방

IWF(Interworking Function)는 휴대폰에서 발송한 음성 신호를 데이터 신호로 바꾸는 장치로 이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모뎀을 묶어 놓은 장치를 말한다. 기지국과 교환기를 통해 들어온 음성 신호를 IWF 를 통해 데이터로 바꿔준다는 의미에서 모뎀과 흡사하다. IWF 가 망 중립성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외부 포털들이 IWF 단 뒤에 무선 인터넷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나 서버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IWF(Interworking Function)

정부가 망 중립성을 추진하면서 IWF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무선인터넷망 개방이라고 할 수 없다. IWF 개방에 따른 콘텐츠 개발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IWF 까지 개방해야 할 것이다. IWF 개방은 현재 기간통신 사업자간에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기술 발전이나 콘텐츠 개발 추세를 감안하면 IWF 까지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유해콘텐츠 해결

유해콘텐츠 검증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유해콘텐츠 검증기관을 선정해야 하지만 망 중립성이라는 문제가 산적해 혼란이 불가피하며, 본격적으로 신규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쏟아질 경우 유해콘텐츠 검증작업과 모니터링의 어려움으로 유선 인터넷의 유해성이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콘텐츠업체 관계자는 ‘무선인터넷은 유선인터넷에 비해 유료화가 일반화되었고 사용자의 사적 공간이 보장되어 음란 콘텐츠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많은 음란 불량 콘텐츠를 일일이 검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유해 콘텐츠 검증기관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 경우 5명 내외의 콘텐츠 사전 심의 인력과 20~30명의 사후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해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 동영상의 경우 정지 상태의 컷을 일일이 체크, 검증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검증 지연이 우려되며, 앞으로 사행성 콘텐츠까지 서비스될 경우 사후 모니터링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콘텐츠 시장질서

무선인터넷 시장에 이동통신사 외에 유선통신사업자, 대형 포털 등이 앞 다퉈 진입한다고 볼 때 그 동안 이동사에 콘텐츠를 제공해오던 군소 CP 들로서는 거대 경쟁사와 싸워야 하는 큰 위

기가 될 수 있다. 또 거대 경쟁사가 회원확보 마케팅 차원에서 콘텐츠를 무료 또는 저가의 정액 요금제로 판매하거나 과다경쟁으로 가격파괴를 일으켜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유료 콘텐츠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신규 진입 사업자들은 무선 서비스 다각화,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CP 들은 콘텐츠 유통 채널을 다양화해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동안 무선인터넷 시장을 이끌어 온 노하우와 참신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V. 시장 동향

망 중립성은 정부와 기업 및 개인 생활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일대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망 중립성은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이다. 그러나 망 중립은 건전한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의 무한한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틀리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KT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급증하는 트래픽에 따른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비를 감당하면서도 정액요금제하에서 투자비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인가 하는 망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다. 한편, 국내 인터넷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망 투자를 담당하던 네트워크 사업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업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래픽에 대한 차별이 생긴다면 앞으로 인터넷의 성공신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말한다.

이렇게 망 중립성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망 중립성은 단순히 인터넷의 운영원칙을 정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터넷 종량제, 정산체계, 인터넷 투자재원, 상호접속, 망 개방 등을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차별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근거에서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Google 과 같은 대형 CP 들은 ISP 가 콘텐츠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면 차별화가 수면위로 뜨게 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체 네트워크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보하거나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이용하여 ISP 를 우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망 중립성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즉 ① 망 중립성 논리의 경제학적 타당성 부족 ② 불필요

한 규제에 개악될 가능성 ③ 인터넷 환경 개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④ 기타 정치적인 입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OECD 장관회의 및 서울선언문 채택에 따라 주목되는 이슈는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변화다[8]. 망 중립성을 대한 각국의 이해 정도 및 상황에 따라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하반기 실시간 IPTV 상용화를 앞두고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동등 접속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관련 법이나 정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IPTV 시행령 또는 망 중립성과 관련한 별도의 법안 마련도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선출 전에 뛰어들기 전 케이블 및 통신회사들이 야후 같은 인터넷 회사들에 접속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망 중립 법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망중립법안’이 없을 경우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정보 이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VI. 결 론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망 중립성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의 도출은 결코 쉽지 않다고 관련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망 중립성 보장 여부에 따라 인터넷관련 사업자들의 사업모델부터 정산체계·상호접속 등 인터넷의 운영원칙까지 기존 인터넷 환경 전반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망 중립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이 모두 타당성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코 사업자의 단순한 이해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을 의식하여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의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진우, UCC(우리가 만드는 21 세기의 Creativity),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8.
- [2] <http://www.dt.co.kr>
- [3] 김도훈, “NgN 과 망 중립성 논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ITFIND, 제 1266 호, 2006. 4.
- [4] 하운경 외 2인, “TV 포털 서비스동향”, ITFIND, 2006 년 4 월.
- [5] <http://www.etnews.co.kr>
- [6] 융합환경에서 콘텐츠 접근에 관한 연구(1): 국내 유료 TV 시장에서 콘텐츠의 동등접근 이슈, KISDI, 2008. 5.
- [7] 김성철, 컨버전스 2.0 과 비즈니스, 삼성경제연구소, 2008. 4.
- [8] <http://www.ddaily.co.kr> 2008 년 6 월 19 일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A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